



# “꼭 해낼거야”

### 최경주 6년 연속 상금 100만 달러 도전

#### 내일 PGA 와초비아 챔피언십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 8년째인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6년 연속 ‘밀리언달러’ 달성에 도전한다. 3일(한국시간) 오후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할로우골프장(파72·7천438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와초비아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시즌 네번째 ‘톱10’ 입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 달 30일 끝난 EDS 바이런 벨스 챔피언십에서 컷오프를 당하면서 상금 획득에 실패한 최경주가 10위 이내 입상을 당면 과제로 삼은 것은 상반기 안에 시즌 상금 100만달러를 채우겠다는 의욕에서다.

PGA 투어에서 시즌 상금 100만달러는 정상급 선수의 표상이다. 상금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연간 100만달러를 벌어들이면 랭킹 100위 이내에 포함되며 이듬해 투어 카드를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다.

더구나 시즌 중반에 100만달러를 넘어서는 선수는 50명을 넘지 않는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PGA 투어 선수로 활약한 최경주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시즌 상금 100만달러를 가뿐하게 넘겼다.

2002년과 2004년, 그리고 작년에는 200만달러를 넘었고 2003년에는 200만

달러에 400달러가 모자랐을 뿐이다. 최경주의 현재 시즌 상금은 90만7천109달러. 9만2천891달러만 벌어들이면 100만달러를 채운다.

총상금 630만달러짜리 특급 대회인 와초비아 챔피언십에서 10위 이내에 입상하면 15만달러 이상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최경주의 ‘톱10’ 입상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마스터스를 치른 이후 휴식을 취했던 최경주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이다.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 짐 퓨릭, 필 미켈슨(이상 미국), 애덤 스콧(호주), 어니 엘스(남아공), 헨리 스텐슨(스웨덴), 비제이 싱(인도), 조프 오길비(호주), 레티프 구센(남아공), 루크 노블드(잉글랜드) 등 세계랭킹 1~10위 선수들이 모조리 출전 신청서를 냈다.

세계랭킹 20위 이내 선수 가운데 유럽 투어에 주력하고 있는 폴 케이지(잉글랜드·13위)와 니 오펜(호주·17위) 등 3명만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는다.

신인인 탓에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대회에 나설 기회가 적었던 앤서니 김(21·나이키골프)의 겹겹의 플레이도 기대된다. 한편 드라이버가 흔들려 경기를 망친 일이 잦은 우즈는 이번엔 나이키 사가 드라이버를 들고 나올 것

이라는 관측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장애물 넘고 넘어

1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중·별육상선수권대회 3000m 장애물 여자 대학일반부 경기에서 선수들이 힘차게 장애물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일고 정찬헌 패투 4강 안착

광주제일고가 제41회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 준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제일고는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9차전 덕수고와의 8강전에서 선발 정찬헌의 5이닝 6탈삼진, 무안타, 무실점 호투와 장단 8안타를 몰아친 타선에 힘입어 6-0으로 승리했다.

광주제일고는 이날 승리로 2일 오후 1시 중앙고와 결승진출을 다투게 됐다.

1회 한희준, 서건찬의 2루타 두개를 묶어 선취점을 뽑아낸 광주 제일고는 2회 선두타자 조성진의 우월 솔로포를 시작으로, 윤여운, 정승인, 한희준의 2루타 3방으로 대거 3점을 추가했다.

덕수고에 6-0 완승 거둬

오늘 중앙과 결승행 다툰

#### 대통령배 고교야구

광주제일고는 4-0으로 앞선 3회에도 볼넷 두개로 얻은 2사 1, 2루 득점 찬스에서 7번째 자 조영선의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로 점수를 추가,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중앙고는 김응규의 4타수 3안타(4타점) 등 장단 9안타를 몰아쳐 마산 용마고를 상대

로 8-1, 7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한편 1일 열린 8강전에선 서울고가 이형종의 6타수 4안타(3타점) 등 장단 17안타수로 경남고에 13-6, 8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서울고는 1회말 이형종의 적시타로 1점을 먼저 뽑았고 4회 안성무와 김경오의 연속안타로 2-0으로 앞섰다. 서울고는 5회 타자 12명이 안타 4개와 볼넷 2개, 몸에 맞는 공 3개 등을 묶어 대거 6점을 뽑아내면서 승기를 잡았다. 경남고는 7회 6-9까지 따라 붙었지만 8회말 4안타를 집중시킨 서울고에 4점을 더 내주며 콜드게임 패배를 당했다.

최재호기자 lucky@kwangju.co.kr

### 어린이회원 모집 KIA, 15일까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2일부터 15일까지 구단 홈페이지에서 2007 시즌 어린이 회원을 모집한다.

남녀 초등학생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가입비는 5만원이다. 어린이 회원은 전국야구장의 일 반석에 무료로 입장하고 모자, 재킷 등의 기념품을 받는다.

또 무등경기장에서 구단 상품 구입시 20%할인 혜택을 준다.

최재호기자 lucky@kwangju.co.kr

## “울고 싶어라”

찬호 시즌 첫등판 패전 야수들 잇단 실책 ‘불운’ 말린스전 4이닝 7실점

박찬호(33·뉴욕 메츠)가 올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지만 야수진의 연속된 실책성 플레이 탓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허공에 날렸다.

박찬호는 1일(한국시간) 뉴욕 세이스터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플로리다 말린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4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한 안타 6개로 7점을 내주고 0-7로 뒤진 4회말 타석에서 루백고타이로 교체됐다.

메츠가 6-9로 패하면서 박찬호는 패전투수가 됐다.

1회 공 10개로 삼자 범퇴시키며 신뜻하게 출발한 박찬호는 2회에도 11개로 뜬공 2개와 삼진으로 가볍게 넘어갔다.

재양은 3회 2아웃 뒤에 시작됐다. 2사까지 잘 처리한 박찬호는 투수 스캇 울센에게 중견수 앞으로 가는 첫 안타를 맞은 뒤 투 타자 연속 스트라이크 볼넷을 내주며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이 때부터 메츠 수비진이 어슬픈 플레이를 연발했다. 박찬호는 플로리다의 간판 타자인 미겔 카브레라를 2루

직선타로 오리하는 듯 했으나 2루수 데미언 이슬리가 점프 후 다 잡았던 타구를 놓친 사이 두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았다.

계속된 2사 1, 2루에서 마이크 제이콥스의 뜬공을 잡으려고 메츠 유격수, 중견수, 2루수가 몰렸지만 유격수 호세 레예스가 놓치면서 2루 주자 댄 어글라가 득점했다.

메츠 야수진의 실책성 플레이는 모두 안타로 기록됐다. 박찬호는 계속된 2사 2,3루에서 조시 윌링엄에게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빗맞은 안타를 맞고 2점을 더 치렀다.

4회에는 1사 후 알프레도 아메자에게 우월 솔로포, 2사 후에는 핸리 리미레스에게 좌월 솔로포를 얻어 맞고 자책점이 7점으로 불었다.

3회 2사까지 8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한 박찬호는 수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한 번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위기 관리 능력에 허점을 드러내며 베테랑 투수답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최재호기자 lucky@kwangju.co.kr

## 매경오픈골프 내일 개막

한국프로골프 메이저대회인 제26회 GS칼텍스매경오픈이 6억원의 총상금(우승상금 1억2천만원)을 내걸고 주부대인 경기도 성남시 남서울골프장(파72·6천969야드)에서 3일 개막한다.

매경오픈은 한국골프협회(KGA)가 주관하며 아시아프로골프투어 대회를 겸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호주를 포함, 아시아투어의 강자들이 집결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대부분 우승을 도맡아 차지한 전통을 이어왔다.

1990년 이후 남서울골프장에서 열린 12차례 대회에서 외국 선수에게 우승을 내준 것은 단 두번 뿐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에

서도 한국 선수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이번 ‘토종 강세’는 남서울골프장이 7천야드가 채 안 되는 짧은 전장이지만 그린과 퍼트와 까다롭기 때문에 코스에 익숙한 선수들이 절대 유리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국내 선수 99명과 해외 선수 63명 등 162명 가운데 남서울골프장에 강한 선수를 꼽는다면 백전노장인 최상호(52·카스코)와 ‘슈퍼 루키’ 김경태(21·연세대)다.

묘하게도 한국프로골프 최고급 선수와 올해 프로에 뛰어난 신참이라는 점이 대조를 이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장현철 ‘금빛 발차기’

(전남과학대)

#### 대학 태권도선수권 페더급

전남과학대학 장현철(21·2년)이 ‘제34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화려한 금빛 발차기로 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현철은 지난달 30일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부 3조 페더급 결승전에서 최전대(성화대학)를 꺾고 우승했다.

장현철은 이날 결승에서 2-3로 뒤지던 중 경기종료 13초를 남겨놓고 앞돌려차기로 결승전 상대인 최전대의 얼굴을 적중시켜 4-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1조 결승에선 허필립

(동아대)이 이명환(계명대)을 눌렀고, 2조는 조기환(중부대), 4조는 고재근(경주대)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여자부 페더급 1조 결승에선 정나리(경희대)가 오샘이(용인대)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고, 2조는 서동인(경운대), 3조는 양혜경(영동대)이 각각 우승했다.

한편 남자부 4개조, 여자부 3개조로 나뉜 체급별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1조는 참가자격의 제한이 없으며, 2조는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없는 자, 3조는 대학(2년제)에 재학 중이고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없는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뉴욕메츠의 박찬호가 1일 플로리다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3회 5점을 내준 뒤 마운드를 내려오고있다. /연합뉴스

